[UCI]I804:24011-200000256558

2012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16세기 湖南士林의 家訓

-柳希春・奇大升 家의 사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鄭 京 美

16세기 湖南士林의 家訓

-柳希春・奇大升 家의 사례-

The Honam sarim`s family codes of conduct(家訓)

in 16th century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鄭 京 美

16세기 湖南士林의 家訓

-柳希春・奇大升 家의 사례-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鄭 京 美

정경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숙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종범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머리말 ·····1

Ⅱ. 15세기말 金宏弼의 修己哲學과 湖南士林·····5

Ⅲ. 16세기 湖南士林의 성장과 家訓의 역할·····15

1. 柳希春家의 「庭訓」에 나타난 出處論과 經世論 ·····17

2. 「過庭記訓」의 爲己之學과 奇大升의 道學政治 구현 ···32

Ⅳ. 맺음말 ····· 43

참고문헌 ·····47

ABSTRACT

The Honam sarim`s family codes of conduct(家訓) in 16th century

Jung kyung mi
Advisor : Prof. Lee jong bum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thought of the leading figures in the late 15th century, particularly that of Gueng-pil Kim, and identified the noticeable characteristics in the tendencies to recognize reality and the methods of complying with reality when he became associated with Honam Sarim (forest of scholars) during his exile at Suncheon while being immersed in Taoism. This signified a view that the origin of thought through the academic tradition of Honam Sarim was closely associated with Gueng-phil Kim's thought.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looked closely into how his learning and educational activities affected his circle and how his thought has been shown and passed down to its characteristic formation and the motto of his family.

In this regard, the study investigated how Homan Sarim set up their active academic tradition with more diverse social intercourses and private opinions and how they attempted to embody them in actual politics. Gye-rin

Yu, pupil of Gueng-pil Kim, compiled『居家篤行十條』and passed it down to his son Hui-chun Yu who added it in [Jeonghun]. First of all, he arrange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n the Hyangchon(鄕村) society in「Nae-pyeon」and the regulations that Sajok had to keep when they worked as officials in the royal court or as governors in local areas in「Oe-pyeon」.

Dae-seung Gi compiled the teaching of his father's in a book entitled [Gwajeong Gihun], which confirmed that he studied neither to find a way to earn bread nor to gain earthly honor. Therefore, he recommended learning consistently through his family motto and believed that Uigizihak (learning for oneself) would allow one to be more mature morally and to live one's life dedicated further to one's society. His attitude was clearly connected with the actual political operating theory. Namely, he claimed that legal systems alone could not correct people's disorderly morals and custom. He set up and firmly advocated a principle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existence of competent persons. Furthermore, he believed that without such competent persons, their justification and consciousness, any good systems and good handling of current affairs would be useless.

Ⅰ. 머리말

家訓이란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후손이나 자녀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을 말한다. 그 특성상 용어와 형식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죽음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을 遺言이라 한다. 때로는 간찰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遺書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며, 낱장의 문서로 존재하기도 하고, 책으로 엮어서 방대한 내용을 담기도 한다. 이들은 용어와 형식은 다르지만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가훈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1)]

가훈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오랜 것은 中國 北宋 때의 顔之推의 『顔氏家訓』인데, 저자인 안지추는 531년(大通 3)에 태어나서 梁·西魏·」北齊·北周를 거치면서 隨나라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는 대대로 문벌 사대부 집안에서 자라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손들이 조상들의 家風을 이어받아 家門의 명예를 높임은 물론 사회를 교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자손들을 훈계할 목적으로 가훈을 지었다.[2)] 여기에는 가족도덕·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경제생활·풍속·학문·종교 등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인 체험과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훈이 저술된 것은 고려시대로[3)], 장성서씨의 시조가 된 徐稜의 '居家十訓'[4)]이 있다. 그는 모친이 병들자 문하시중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였고, 향리에 草堂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 또한 유교적 생활습관과 덕목을 제시한

---

1) 김경숙, 「家訓을 통해 본 17세기 士大夫家의 墳山守護」, 『사학연구』 제87호, 한국사학회, 2007, 49쪽
2) 심정열, 「朝鮮時代 家訓 硏究-眉巖·草廬·戒懼巖·顧巖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11, 1쪽
3)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때부터 씨족별로 가훈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3백여 성씨 중에 70여 가훈이 발견되고 있다. 이 중 오래된 것으로는 김유신의 가훈, 아들 최영에게 유언형식으로 남긴 최원직의 가훈인 '見金如石'이 보인다.
4) 거가십훈(居家十訓)은 고려 고종 때 관료를 지냈던 서릉이 시묘살이할 때 배우러 온 어린 자제들이 예제를 알지 못하므로 만들어 가르쳤던 것이다. 모두 10조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서삼경을 참고하여 완성하였다. 「居家十訓」을 최초로 수록한 간본은 1578년 또는 직후에 간행된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이다. 이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할 규범과 덕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은 어린 자제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한 평생 지켜나가야 할 내용이므로 어린 자제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한 집안의 가르침에 그치지 않는다. 곧 모든 성인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책무, 부모의 상제례, 심지어 자식교육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거쳐 지켜야 할 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오용섭,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서지학연구』42, 2009, 201~202쪽)

‘居家十訓’을 남겨 후세의 지침이 되게 하였다. 이는 단순한 교훈적 성격의 가훈이 아닌 가족과 향당 윤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科擧를 통해 사회적 진출을 도모함에 따라 聖賢의 가르침을 자제들에게 심어 주는 것은 물론 입신양명하여 조상의 이름을 빛내는 것을 孝의 대의로 삼는 조선시대 유교 전통에 따라 사대부가에 많은 가훈이 생겼다. 당시 교육이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던 시기에 조상으로부터 전해내려 온 가훈은 한 집안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후손들의 행동 지침이었다. 따라서 가훈은 집안의 家風에 맞도록 이루어져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5]

조선시대 가훈 또한 도덕적·윤리적 덕목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6] 대표적인 것으로는 15세기 申叔舟의 「家訓」, 16세기 柳希春의 「庭訓」, 17세기 姜德後의 「愚谷先生訓子格言」과 李惟泰의 「정훈」, 18세기 尹衡老의 「家訓」, 19세기 李擎根의 「顧菴家訓」, 20세기에는 申箕善의 「家訓」 등이 있다.[7] 이들이 모두 그러한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조선시대 가훈은 당대 사람들의 삶의 원칙과 함께 사회,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훈에 대한 관심은 주로 교육학 쪽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역사학에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근래 역사학에서도 연구성과[8]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대개 개별 가훈에 대한 사례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가훈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지역별 가문에 따른 특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훈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6세기는 향촌재지세력인 士林이 기존의 훈구세력과의 대립과정을 통하여 중앙

---

5) 심정열, 「朝鮮時代 家訓 硏究-眉巖·草廬·戒懼巖·顧巖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11, 1쪽
6) 김경숙, 「家訓을 통해 본 17세기 士大夫家의 墳山守護」, 『사학연구』 제87호, 한국사학회, 2007, 49쪽
7) 정무곤, 「17세기 가훈서를 통해 본 家의 교육적 역할」, 『교육철학』 제40집, 2007, 165쪽
8) 가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정구복, 1996, 「고문서를 통한 가훈 연구」, 『정신문화연구』 64; 우인수, 2000, 「朝鮮後期 한 士族家의 生活 樣式 - 草廬 李惟泰의 庭訓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2; 김경숙, 2005, 「조선후기 이원익 가의 爲先事業과 遺書」. 『오리 이원익 종가의 이야기』, 충현박물관; 김경숙, 2007, 「家訓을 통해 본 17세기 士大夫家의 墳山守護」, 『사학연구』 87; 김언순, 2009, 「18세기 종법사회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교화 : 가훈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83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시기였다. 중종 후반에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던 사림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향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갔으며 명종대에 이르면 학문적 경향과 지역의 차이에 따라 학파를 형성하였다.[9]

중종반정 이후 조선왕조의 정치사 전면에 등장한 성리학 세력의 사림, 이들은 개국이래 조선 정부의 지속적인 성리학 중심의 이데올로기 확산정책에 발맞추어 거대한 세력집단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朋黨 정치의 주역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지식계층이었던 만큼 사림세력은 자연히 학문과 정치 양면에 걸쳐 조선 시대사 전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10]

15-16세기의 대표적인 사림파 학자로는 金宗直,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滉, 李珥 등이 손꼽힌다. 당시 사상경향을 주도했던 인물 중 특히 김굉필의 사상, 그 중에서도 실천중심의 도학사상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현실인식과 교육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전기 호남 지방의 사림관계 사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나타난 현실인식 성향과 현실대응의 방법에 있어서 주목되는 특성이 있다. 중종반정 직후 집중적인 중앙진출 양상을 띄면서 홍기한 전라도 사림계의 동향, 그리고 그들의 인맥과 학연을 통한 學問授受 관계와 사상적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이는 호남사림의 학맥을 통한 사상적 연원이 김굉필의 사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그의 학문과 교육활동이 호남 사림계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그의 사상적 영향이 호남사림의 성격형성에 어떻게 반영·계승되었는가에 대하여 가훈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위에서 16세기, 특히 명종 후반에서 선조대에 걸쳐 호남 가훈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과 학문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의 정치계와 사상계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과 연결시켜 새롭게 이해해 보려고 한다.

이에 당시 호남의 주요 가훈으로 柳希春家의 「庭訓」과 奇大升家의 「過庭記訓」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 호남사림들의 현실인식의 바탕에는 김굉필의 실천중심 도학사상이 내재되어 있으며, 보다 다양한 교유와 사론활동으로

9) 고영진, 「16세기 호남사림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경상대남명학연구소, 1993, 23쪽
10) 정만조, 「조선시대의 사림정치-17세기의 정치형태」, 『한국사상의 정치형태』, 일조각, 1993

활발한 학풍을 조성하고 나름의 경세관으로 표출되고 있었음을 살펴보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이 가학으로 이어져 가훈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가정 내에서의 향약처럼 작용하며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현실인식이 반영된 가훈이 향약 내지는 사론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단순한 교육과 훈계로서의 가훈이 아닌, 16세기 호남사림의 교유활동에 초점을 두어 사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활동의 산물로서 당시 도학적 현실인식이 반영된 가훈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Ⅱ. 15세기말 金宏弼의 修己哲學과 湖南士林

주지하듯이 金宏弼(1454~1504)은 '東方五賢'이라 불린 다섯 사람의 조선전기 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호칭은 선조 때 유생과 관료들이 그를 비롯하여 鄭汝昌(1450~1504), 趙光祖(1482~1519), 李彦迪(1491~1553), 李滉(1501~1570) 등 다섯 사람을 함께 문묘에 종사할 것을 요청하면서부터 일컬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11] 그리고 마침내 광해군 2년(1610) 9월에 이 다섯 사람은 문묘의 동·서무에 배향되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로 인정을 받았다.[12]

그의 생애는 행장 기록이나, 후학들의 술회를 통하여 보면 참으로 순탄하지 못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대의 士林들이 지닌 사회적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뒤늦은 도학 입문, 짧은 관력, 士禍로 인한 유배와 만년의 은거, 강학 활동 등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굉필의 인생관이 집약된 사상의 큰 줄기를 道學思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도학의 의미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중용에 이르기를 '하늘이 명한 것을 性이라 이르고, 性에 따르는 것을 道라 이르고, 道를 닦는 것을 敎라 이른다. 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道가 아닌 것이다.'[13] 하였으니 이 말은 道와 性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도학을 성리학이라고도 하며, 이를 良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道란 높고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道란 天命에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이며, 인간의 정당한 생활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14]

李珥에 의하면 도학이란 "본래 인간 윤리의 내면성을 밝히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인간의 도리를 극진하게 하는 것이 도학이다."[15]고 하여 도학을 人道實現에

---

11) 김훈식, 「寒暄堂 金宏弼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와 그 의미」, 『동방학지』 13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37쪽

12) 『광해군일기』(중초본), 권33, 광해 2년 9월 5일, 7번째 기사

13) 『中庸』, 第三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14) 이종욱. 「寒暄堂 金宏弼의 道學의 觀點에서 본 敎育思想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13쪽

15) 『栗谷全書』, 권31, 「語錄」上, 道學本在人倫之內。故於人倫盡其理。則是乃道學也

바탕을 두고 있으며, 東湖問答에서는 도학을 “格致로써 善을 밝히고 誠正으로써 몸을 닦아 그 학문이 몸에 지녀져 있으면 天德이 되고, 정치에 베풀어지면 王道가 되는 것”[16]이라 하여 修己를 통한 인격완성과 왕도의 실현을 위한 治人의 결실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학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사람이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窮究하는 學으로 공자에 의해서 제시된 仁思想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최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도학은 성리학적 이론과 그 실천을 함께 지키며, ‘實踐躬行’을 강조하므로 ‘성리학적 실천유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17]

張顯光은 김굉필의 神道碑文에서

> 도라는 것은 무슨 도인가. 그 타고난 양심을 따르는 것이다.
> 선생은 그것을 깊이 알아 스스로 책임을 지며 의심하지 않았다.[18]

라고 하여 김굉필의 ‘道’라는 것은 천명 내지 양심에 따르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나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떳떳한 도리에 따르는 생활 속에서 살았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다.

奇大升은 김굉필의 행장에서 ‘선생은 타고난 성품이 매우 높고 行義를 닦는데 매우 엄격하였으며 배우는 사람을 격려해서 도학을 창도하여 밝혔으니 그 공이 매우 큽니다.’[19]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김굉필은 인간의 정당한 생활방식으로서 道와, 사람이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궁구하는 學으로서 도학 진흥에 관한 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김굉필의 道學이 성리학적 이론과 그 실천을 함께 가지며 실천궁행을 강조하므로 ‘성리학적 실천유학’이라 정의할 때, 김굉필에게서 修身齊家로서의 修己의 道學과 治國平天下로서의 治人의 도학의 양면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

16) 『栗谷全書』, 권15, 「雜著」 二, 「東湖問答」, 格致以明乎善。誠正以修其身。蘊諸躬則爲天德。施之政則爲王道

17) 이종욱. 「寒暄堂 金宏弼의 道學의 觀點에서 본 敎育思想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16쪽

18) 『景賢續錄補遺』 下, 神道碑 ; 『국역경현속전』, 347쪽

19) 『景賢續錄』 上, 行狀

동시에 이 양면은 둘이 아니고 근원이 하나임도 알 수 있겠다.[20]

도학의 실천성은 일차적으로 일상생활의 도를 그 실천 내용으로 한다. 이는 학자가 성리학을 연구하는 것도 결국 道를 실천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김굉필 역시 道學者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李肯翊은 "평상시에도 반드시 갓을 쓰고 띠를 띠고 있었으며 밤중이 되어서야 잠을 자고 닭이 울면 일어났다. 본부인 외에는 일찍이 女色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21]하였고, 『燕山君日記』를 보면 "金宏弼은 忠信하고 篤行하여 학문으로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을 뿐, 급급히 진출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 立心의 바름과 制行의 높음을 옛사람 가운데서 찾아야 하겠다."[22]고 하여 김굉필의 마음가짐의 바름과 행실함의 높은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소학으로서 몸을 다스리며 바른 생활 태도를 굳게 지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칭 '小學童子'라 칭하며 30세까지는 도학의 근원이 되는 '修身齊家'에 주력하였다. 41세 때 逸薦으로 남부참봉에서 형조좌랑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있었다. 김굉필의 도덕이 개인의 수신에 그치지 않고 國事에 미쳤으니 수신제가의 생활이 그대로 치국평천하의 생활로 연장되었던 것이다.

그가 스스로 소학동자임을 자칭한 까닭은 『소학』에 나타난 律身的 修己의 躬行이 바로 의리실천을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도학의 기초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김굉필이 『소학』을 중시하던 당시의 학자들과 다른 점이다. [23] 그의 『소학』중시는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닌, 『소학』과 관련되는 그 나름의 修己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爲己之學'을 이상시하는 성리학의 존심양성의 躬行이 『소학』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고 소학동자로 자칭한 것이다. 修己가 治人의 기초가 되는 것에 기인하여 철저한 수기에서 철저히 치인의 行이 나옴을 김굉필을 통해서

---

20) 이종욱, 「한훤당 김굉필의 도학의 관점에서 본 교육사상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17쪽
21) 李肯翊, 『練藜室記述』, 6권
22) 『燕山君日記』 권 31, 연산 4년, 8월 16일, 5번째 기사
23) 이종욱, 「한훤당 김굉필의 도학의 관점에서 본 교육사상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32쪽

발견할 수 있다. 그가 27세 되던 해 원각사에서 斥佛疏를 올려 간사한 원각사 중을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김굉필은 사회와 국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굉필의 연보에 보면, 그의 나이 33세 때(1486년)에는 스승 김종직이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조정에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여 실시한 일이 없으므로 김굉필이 시를 지어 올려 풍자하였더니 김종직이 좋아하지 아니하여 둘의 사이가 갈라졌다고 한다.[24] 김굉필의 건의에 회답한 김종직의 시문이 아래와 같이 전한다.

大事吾何敢擔當	큰일을 내가 어떻게 감히 담당하리
膏肓從古少良方	고질병에는 예로부터 좋은 약이 없었다네
細氈顧問如將備	장차 임금의 고문에 참여할 때에
要取君詩誦五章[25]	반드시 그대 시 다섯 장을 외우리라

이와 같이 김종직은 마지막 수에서 道를 실현하는 일이 어렵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그럴만한 힘이 없음을 토로하며 자신은 시대의 변화와 나라의 개혁과 같은 국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숨기지 않고 다만 그대의 뜻은 잊지 않겠노라 하였다.[26] 이를 통해 봤을 때 김굉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아마 조정에 나설 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이왕 나서실 것 같으면 나라를 고치는 일에 매진하여 주시라는 바람을 적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김굉필의 치인적 처세가 얼마나 의리에 철저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김굉필은 道의 내용이 되는 의리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일찍 깨닫고 몸소 그 모범을 보이기에 힘썼으며 의리 실천의 투철함이 修己・治人 양면에 일관했던 점으로 그의 솔선수범의 효과 내지 사회적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사상을 종합해보면 수기의 철학을 가지고 그 실천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치인보다는 수기적 의리의 구현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

24) 『景賢續錄』 上, 「年譜」
25) 『佔畢齋集』, 「시집」 제15권, <和金大猷五首>
26) 이종범, 「김굉필, 침묵, 미래와의 대화」, 『사림열전 2 : 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6, 373~374쪽

이를 바탕으로 한 김굉필의 道學은 고상한 이론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몸가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30여 년의 오랜 세월을 실천위주의 도학에 힘을 쏟은 결과 참된 성현의 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조선조 학문과 교육의 방향을 확립하였으며 조선시대 사림들의 근본정신이 되었다.

16세기 호남사림의 학풍을 고찰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김굉필이다. 영남사림의 태두인 김종직의 제자였던 그는 스스로 '小學童子'라고 칭할 정도로 성리학의 실천 수신서인 『소학』을 중요시하였다. 김종직은 문하에 들어온 김굉필에게 『소학』을 가르치면서 말하길, "참으로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이 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굉필은 이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실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27] 김굉필은 이러한 『소학』의 중요성을 시구에도 남기고 있다.

業文猶未諳天機	글 공부를 하여도 천기를 모를러니
小學書中悟昨非	『소학』에서 어제까지의 잘못을 깨달았구나.
從此盡心供子職	이로부터 정성껏 자식 도리 다하고자 하니
區區何用羨輕肥[28]	구구하게 어찌 잘 살기를 부러워하랴

기대승은 그의 「논사록」에서 "『소학』이란 책이 우리 동방에 유포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大義를 능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굉필이 학도를 모아 講明하고부터 그 책이 세상에 크게 유행하여 기묘 연간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모두 『소학』으로 근본을 삼았습니다."[29]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김굉필 이후 도학 실천을 강조한 선비들이 교육 내용의 하나로 『소학』공부에 주력한 것은 김굉필이 『소학』을 인간교육의 근본이자 본질로 권장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7) 「景賢錄」 上, 「詩賦」

28) 김굉필은 『소학』을 생활철학으로 삼아 실첨함으로써 도학의 방향과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의 지배적인 학문경향을 '科擧之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수기'와 '치인'을 별개로 파악하던 당시 '경세지학'과는 달리, '수기'가 곧 '치인'이라는 관점 위에 일상생활 속에서 유교적 윤리도덕 규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김훈식, 「한훤당(寒暄堂) 김굉필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와 그 의미」, 『동방학지』 13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56쪽; 장도규, 「한훤당 김굉필의 도덕적 삶과 시 일고」, 『한국사상과 문화』 4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29쪽)

29) 『高峯集』, 「논사록」, 상권, 11월 4일, "小學之書。流布東土已久。而人無能知其大義。有金宏弼聚徒講明。其書大行於世"

김굉필의 학연이 호남지역에 미친 것은 순천에서의 5년간에 걸친 유배생활과 관계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평안도 熙川에 유배되었다가, 2년 뒤 전라도 순천에 移配되어 그 때부터 1504년 갑자사화로 賜死되기까지 5년 동안 순천에 기거하며 호남사림들과 활발히 교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김굉필의 유배지에서의 교육활동과 사상적 영향 관계의 고찰은 16세기 호남사림의 학풍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굉필 학문과 사상의 중요한 키워드는 그가 일생동안 추구하였던 실천중심의 '소학적 수기의 도학'이라 하겠다.

특히 그가 『소학』을 중시했음은 주지하는 사실인데, 『소학』은 교육기관에서 8세 이상의 학생들이 필수과목으로 배우는 과목으로, 15세가 되면 『대학』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김굉필은 나이 30이 되도록 이 책만을 읽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이론위주의 '爲人之學'에 힘쓰지 않고, 실천위주의 '爲己之學'에 매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굉필은 조광조 등 제자에게 '君子儒'와 '小人儒'의 차이점을 되풀이하여 설명하고,[30] '위기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참다운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지학'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奇大升은 김굉필의 행장을 다음처럼 기록하였다.

> 선생은 날로 『소학』과 『대학』을 외는 것으로 학문의 규모를 삼고 육경을 깊이 탐구하야 힘써 誠敬을 마음에 간직하고, 存養省察을 禮로 삼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用으로 삼아 기필코 대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하였다.[31]

김굉필은 자신의 학문을 닦고 실천하기 위하여 거의 參禪僧에 가까운 노력을 하였으며, 제자들은 그의 그런 독실한 자세에 感發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런 독실한 학문자세는 희천에서의 제자인 조광조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도학의 꽃을 피우기에 이르렀다.[32]

---

30) 한예원,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고시가연구」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325쪽 ; 『논어』, 「옹야편」,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

31) 『國譯 景賢錄』, 행장, 한훤당 기념사업회, 2004

32) 한예원,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고시가연구」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326쪽

조광조는 나이 17세 때 魚川察訪이 된 아버지의 임지인 희천에 가서 살게 되면서 45세가 된 김굉필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배웠다. 이때 조광조가 스승에게 배운 것도 역시 『소학』과 『근사록』이었는데, 학문을 배운 뒤에 조광조는 松都의 천마산에 들어가 조용히 독서하였는데 그 모습이 김굉필의 수련모습과 흡사하였다. 조광조는 스승을 뒤이어 도학을 숭상하였으며 『소학』과 향약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이러한 조광조에 대한 後儒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 중 율곡 이이는 『石潭日記』에서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理學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고려때 정몽주가 처음으로 그 단서를 열어 놓았다. 그렇지만 규모가 정밀하지 못하였고, 우리 조선에 와서는 김굉필이 그 단서를 접하였으나 그래도 크게 갖추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광조가 道學을 창도하기에 이르러 배우는 자들이 모두 추존하였으며, 오늘날 성리학이 있게 된 것은 조광조의 힘이다.[33]

율곡 이이의 요지는 우리나라의 道統형성에서 김굉필과 조광조는 빼놓을 수 없는 학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에게는 공통적이었던 듯하다. 김종직에게서 김굉필로 그리고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의 전통이 호남지역에 접목되는 계기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굉필의 순천유배이다.

김굉필의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순천의 지방사료 및 柳希春의 『眉巖日記』등을 통하여 부분적인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굉필은 순천에 있을때도 고을의 유지들과 어울려 시를 짓거나 술 마시며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혼자서 고목 아래를 배회하거나 스스로 飭身制行의 엄격함을 지켰다고 한다.[34]

유배중의 후진교육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연산군 치하의 정시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학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므로 평소에 원근에서 모여든 학도들이 집안에 가

---

33) 『石潭日記』上 (고전국역총서 『대동야승』Ⅳ, 민족문화추진회, 1983, 38쪽)
34) 조원래,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동양학』 25집, 동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269쪽

득하였고, 날마다 경서를 소지하고 강당에 사람들로 자리가 부족하여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35] 그리하여 修己治人의 도학이념을 實踐躬行했던 김굉필의 교육의지와 활동은 유배지 순천에도 유감없이 발현되었다. 그 일면을 『昇平誌』의 撰者인 李晬光은 다음처럼 전하고 있다.

> 그는 순천 謫所에 또 5년간이나 있을 때, 반드시 한두 명의 학문을 묻는 사람이 있어 세태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나 道를 전수받은 자가 없었다. …… 그러나 지금의 儒者는 대개 모두 감화를 받고 흥기하고 있으니, 어찌 선생이 남겨주신 敎誨가 아니겠는가?[36]

이는 김굉필이 순천 적소에서 5년씩이나 보내면서 그가 현지의 유림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당시 詞章중심의 학문에서 實踐躬行의 도학 기풍의 학문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김굉필의 역할이 컸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순천 유배 시기의 호남출신 제자로 호남 출신 제자들로는 崔忠成·李勣·尹信과 崔山斗·柳桂隣·孟權 등이 배출되었다. 이중 최산두와 유계린에 대해서는 행적이 추적되지만, 나머지 인물들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37] 이렇게 김굉필에 의해 성리학적 학문의 기초를 닦은 호남의 인사들은 당대의 현실의식이 반영된 정치・경제적 요소가 강한 나름의 도학적 학풍을 형성해갔다.

유계린(1478-1528)은 진사 公濬의 아들로 순천에서 생장하여 孟權과 함께 김굉필에게 글을 배웠다. 그는 김굉필의 동갑 契員이면서 학문의 道를 같이 했던 崔溥의 사위가 된 후부터 주로 처향인 해남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장인 최부가 무오사화를 당하여 함경도 단천에 유배된 뒤, 그의 장인과 가장 가까웠던 벗 김굉필이 순천에 이배되어오자 다시 순천으로 돌아와 김굉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굉필과 최부는 김종직 문하의 동문으로서 함께 무오년

---

35) 「景賢錄」 상, 「事實」 ; 조원래,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동양학』 25집, 동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269쪽

36) 이수광, 『昇平誌』 하, 「事實」, 한예원,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고시가연구」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328쪽

37) 조원래,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동양학』 25집, 동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263쪽

에 화를 입었고 훗날 갑자사화 때 유배지에서 사사되었다는 점에서, 유계린은 김굉필을 스승 겸 장인처럼 여겼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학연과 인맥에서 두 사람의 영향을 함께 받았으며, 그것을 다시 두 아들 성춘·희춘에게 이어주었다. 유성춘은 기묘명현으로서 기묘사화 직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유희춘은 을사명현으로서 선조 때까지 학명을 떨치면서 崔尙重·梁澍·曺大中·羅德埈 등에게 학맥을 이어 주었다. 그의 학연이 최산두·유계린 등을 거쳐 김인후·유희춘 등에게 이어짐으로써 호남지역의 사림 흥기에 중요한 계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38]

이후 이어진 기묘사화로 호남사림의 당한 피화의 후유증이 작지 않았던 만큼 전라도 사림계는 위축되고 사류들의 사기 또한 저상되었다. 그러나 관로를 기피하고 중앙진출의 경향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화에 연루된 사림을 중심으로 그들 상호간의 교류·결속관계는 오히려 강화된 면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중종대 후반 이후에 들어와서는 도학정치사상을 표방했던 기묘명현의 차세대 사류들이 호남지방의 사림계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김굉필의 도학과 기묘사림파의 경세관을 계승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기른 대표적인 인물이 김인후와 유희춘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김인후가 성리학 그 자체, 즉 도학의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중시했던 반면에 유희춘의 경우에는 경서연구를 통한 저술활동에 보다 치중했었던 점에 작은 차이가 있었다.

김인후의 절의와 사상은 최산두·김안국·기준·박상 등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따라서 기호사림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도 바로 그였던 것이다. 즉 기묘사림파의 사상적 기저가 『소학』의 실천윤리에 있었다고 볼 때, 그것을 특히 중시했던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는 문인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소학』부터 읽힌 다음에 『대학』을 배우게 하였고, 그의 두 아들에게도 역시 『소학』을 10년 이상 공부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보게 했었던 사실[39]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김인후와 유희춘 이후에 호남사림의 도학적 특성을 뚜렷히 이어받은 인물이 곧 奇大升이다. 기대승은 30대의 나이에 이미 그보다 20여년 선학이자 당대 최고의 성

38) 위 논문, 265쪽
39) 『하서집』 부록, 권3, 「연보」 丙年 ; 조원래,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동양학』 25집, 동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273쪽

리학자였던 李恒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을 만큼 그의 학문은 출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은 성리철학을 窮究하는 데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철학에도 일가견을 수립하였다. 이는 「論思錄」에 담긴 정치사상이 그것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기묘명현 奇遵의 조카로서 기묘사림파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그는 선조에게 행한 경연에서, 기묘사화에 얽힌 是是非非를 반드시 가린 다음에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0] 그는 또 김인후와 마찬가지로 『소학』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經席에서 선조에게, 김굉필이 행한 후진교육으로부터 『소학』이 널리 익혀졌음을 지적하고, 조광조 등 기묘사림이 모두 소학정신을 받들어 事親事君의 도리를 알게 되었다고 역설하면서 왕에게 직접 『소학』 進講하기도 하였다.[4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세기 호남사림의 학맥은 김굉필계의 학통이 큰 줄기를 이룬 가운데 그의 사상적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무오사화를 계기로 전라도의 유배지에서 이루어진 그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은 사화기 호남지방의 사림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소학』의 실천 윤리관을 근간으로 한 그의 도학사상이 최산두·기준·유성춘 등의 기묘사림에게 이어진 다음, 명종대의 김인후·유희춘 등을 거쳐 기대승·이발 등에게 계승됨으로써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사림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42]

---

40) 『논사록』 상편, 선조 즉위년 10월 23일 朝講

41) 『논사록』 상편, 선조 즉위년 11월 초4일 朝講 및 11월 16일 夕講, 선조 1년 4월 초3일 夕講

42) 조원래,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동양학』 25집, 동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273~277쪽 ;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참조

Ⅲ. 16세기 湖南士林의 성장과 家訓의 역할

가훈은 가정의 윤리적 교훈이자,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법도를 말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과 그 후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방법인 동시에 이웃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이자 규범인 것이다.[43] 하지만 본고는 가훈을 단순한 훈육서의 성격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윤리와 당시를 살아가는 인물의 출처와·경세관이 내재되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인격형성은 가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가정에서는 그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어 갈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김굉필은 인격형성의 출발이 가정교육에서 시작함을 역설하며 『소학』에서 가르치는 일상생활의 규범대로 사람되는 도리로써 가훈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가정교육을 통해 이를 실천하도록 했으며 그 또한 이를 일생동안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44]

『海東雜錄』에는 김굉필이 『禮記』의 「內則篇」을 본떠서 「家範」[45]을 짓고 儀範

---

43) 손인수, 『韓國敎育思想家評傳』I, 문음사, 1990년, 162~163쪽 참조, ; 이종욱. 「寒暄堂 金宏弼의 道學의 觀點에서 본 敎育思想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64쪽

44) 양진선, 「寒暄堂 金宏弼의 實踐 中心 敎育論」,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 석사논문, 2009, 43쪽

45) 『대동야승』, 「해동잡록」 2 본조(本朝), 김굉필

○ 선생의 《가범(家範)》에 〈거가의(居家儀)〉가 있는데, 안팎이 첫닭이 울면 모두 일어나 머리빗고 세수하고 관을 쓰고 띠를 띠고 나서,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하되 남자는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자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본집(本集)

○ 1, 사춘(司春)이라 하는데 가례(家禮)를 맡고, 2, 사하(司夏)라 하는데 집안의 재화(財貨)를 맡고, 3, 사추(司秋)라 하여 집안의 형벌을 맡아 보고, 4, 사동(司冬)이라 하여 집안의 음식 범절을 맡아본다. 또 상형사생(賞刑赦眚 상벌 규정 같은 것)이란 것이 있다. 동상

○ 계집종은 안 일을 맡아보는데, 1은 주포(主庖)라 하여 음식 잘 만드는 자에게 맡기고 남자로서 또한 그러한 자는 전포(典庖)라 부른다. 사내 종으로서 음식 범절을 맡아 보는 자를 사동(司冬)이라 하였다. 선생이 내칙(內則)을 본떠서 《가범(家範)》을 짓고 의절(儀節)을 마련하여, 자손들에게 보이되 훈계하는 방법은 인륜(人倫)을 더욱 중하게 여겼다. 아래로는 남녀 종들에게까지도 안팎으로 직책을 분별하여 모두 명칭이 있었으니, 안의 일은 계집으로 주관하게 하고 그 명칭을 도주(都主)·주적(主績)·주사(主辭)·주포(主庖)라 하였으며, 바깥 일은 사내 종으로 주관하게 하고 그 명칭은 도전(都典)·전사(典辭)·전시(典廝)라고 하였다. 능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되 절하고 꿇어 앉고 작업하는 것에 모두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한 번 승급하고 한 번 내리는데 상벌의 제도가 있었으며, 길흉에 대비하는 저축도 빈부에 따라 더하고 덜하였다. 매양 초하루 보름마다 친히 독서(讀書)의 예를 제정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화가 일어났다. 〈景賢錄〉

을 마련하여 자손들에게 보이되 훈계하는 방법으로는 인륜을 더욱 중하게 하였다고 한다. 특히 아래로는 남녀 종들에게도 내외가 분명하게 하였으며, 그들 능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되 절하고 꿇어앉고 일하는 것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게 함으로써 가족과 전혀 차이가 없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김굉필이 중국과 같은 가훈서가 제대로 없음을 한탄하며 『예기』의 「內則」 등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나 그 내용의 일부는 가족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남녀 노비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일의 처리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46] 이는 자손을 훈계하고자 함도 있었으나 가정의 의례와 절도를 정하여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교사회에서 가정이 가지는 위치를 이해한다면 김굉필이 자신의 가정교육에 보인 관심은 하나의 표준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47] 그는 우리나라 사대부의 가정에 가훈이 있는 집이 드물 때에 사람되는 도리로서 가훈을 창도하여 가정도의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그 길을 인도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가 일생동안 추구했던 '修己가 곧 治人'이라는 실천중심적 도학의 반영이라 하겠다.

「가범」은 그의 제자인 유계린에 의하여 계승되어 그 중 「居家儀」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 「居家篤行十條」를 찬술하여 아들인 유희춘에게 남겼다. 이는 『眉巖集』에 「庭訓」과 함께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개가 김굉필로부터 이어받은 소학적 수기의 도학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묘명현 奇遵의 조카로 기묘사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대승의 「過庭記訓」에서도 그 사상적 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소고에서는 16세기 김굉필 문하의 호남사림들에게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수기철학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인식의 사유물로써 유희춘家・기대승家의 도학적 현실인식이 반영된 가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6) 조계민, 「김굉필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논문, 2000, 44~45쪽 참조

47) 금장태, 『한국유교의 이해』, 민족문화사, 1989, 158쪽 ; 이종욱. 「寒暄堂 金宏弼의 道學의 觀點에서 본 敎育思想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13쪽

1. 柳希春家의 「庭訓」에 나타난 出處論과 經世論

16세기 호남사림의 대표적인 家訓 중 하나로 유희춘家의 「庭訓」을 들 수 있다. 『眉巖日記』로 잘 알려진 유희춘(1513～1577)은 주지하다시피 선조 초반에 士林政治를 구현해 가는 시기의 중요한 인물로,[48] 1513년 해남현 거제에서 태어났다. 순천에서 해남으로 이거한 柳桂隣(1478～1528)의 차남으로, 崔溥(1454～1504)[49]의 외손이기도 하다. 金麟厚와는 사돈지간이고, 金安國·崔山斗의 門人이다.

중종 7년(153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 예문관 검열, 홍문관 수찬, 무장현감 등을 지내다가 을사사화 때 金光準과 林百齡이 尹任 일파를 제거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파직되었다. 이어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함경도 종성으로 이배되어 19년의 유배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이후 충청도 은진으로 이배되었다가 선조가 즉위하자 삼정승의 상소로 석방되었다. 이후 부제학·성균관 대사성·사헌부 대사헌·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냈고, 예조와 공조의 참판을 거쳐 이조참판을 지내다가 사직하고 낙향했다.

유희춘은 경전과 역사에 능했다. 시강원 설서 재임 시에 세자(후의 인종)의 학문을 도왔고, 선조 초에는 경연관으로 經史 강론에 종사했다. 선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항상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희춘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했다. 만년에는 왕명으로 經書의 口訣諺解에 참여해 『大學』을 완성했고, 『論語』의 주해를 마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외조부 최부의 학통을 계승해 李恒, 金麟厚 등과 함께 호남지방의 학풍 조성에 기여한 그는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담양의 의암서원, 무장의 충현사, 종성의

---

48) 정재훈,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남명학연구』 3, 경상대남명학연구소. 1993, 69쪽)

49) 崔溥(1454~1504)는 김종직의 문인으로서 나주 출신이다. 무오사화 때 함경도 단천에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때 현지에서 사사되었는데 한때 婦鄕인 해남에 기거하면서 尹孝貞·林遇利·柳桂隣 등에게 학문을 가르쳤으며, 그의 두 사위가 羅桎(羅士沈의 父)과 유계린이다. 또한 서거정 등이 주도한 『동국통감』에 새로운 사론 200여 편을 추가할 때 혼자 118편을 감당하고, 『동국여지승람』의 수정증보에도 참여하였던 사림학인이었다. 특히 제주도경차관으로 갔다가 남중국에 표류하여 귀환한 여정을 담은 『표해록』은 '중국을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巨筆'이었다. (이종범, 「최부; 하늘의 뜻으로 세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림열전』 1, 아침이슬, 2006)

종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유희춘의 학문과 사상은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그의 부친 유계린은 진사 公濬의 아들로 순천에서 生長하여 孟權과 함께 김굉필에게 師事하였다. 그는 김굉필의 동갑 契員[50]이면서 학문의 도를 같이 했었던 최부의 사위가 된 후부터 처향인 해남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妻父가 무오사화를 당하여 함경도 단천에 유배된 뒤, 그의 처부와 가장 가까웠던 벗 김굉필이 순천에 移配되어 오자 다시 순천으로 돌아와 그를 모시면서 그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굉필과 최부는 김종직 문하의 동문이며 무오년에 화를 입은 것도 같았다는 점에서 유계린은 김굉필을 그의 스승 겸 빙부처럼 여겼을 것이다.[51] 이와 같이 유계린은 학연과 인맥에서 김굉필·최부 양인의 영향을 함께 받았으며, 그것을 다시 그의 두 아들 성춘·희춘에게 이어 주어 각각 기묘명현과 을사명현으로 키웠다.[52] 그는 당시 최산두와 함께 16세기 호남지방의 사림형성과 김굉필의 학통을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잇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유희춘의 외조부 최부는 그가 태어나기 전 갑자사화로 사사되고, 형 유성춘도 기묘사화로 유배를 갔다가 풀려 나와 2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은 더욱 엄격하였을 것이다. 유계린은 특히 역사와 지리에 밝아,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짓도록 동기를 부여한 명나라 瞿佑의 『剪燈神話』까지 즐겼다. 그는 장인 최부와 스승 김굉필을 사화로 한꺼번에 잃고서 벼슬을 생각하지 않고 踐履躬行을 일삼는 평생 處士[53]로 여생을 살며 가훈을 세우고 자제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이는 제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여야 세상을 다스리는 治人에 나설 수 있다는 修身과 齊家의 길이었던 것이다.[54] 특히 經世理學의

50) 나이가 같고 따르는 도가 같았다는 진사 최부와 김굉필은 성균관 시절부터 '정지교부계'의 동지였다. 이는 진사 朴聃孫, 진사 申希演 , 생원 宋碩忠 등과 함께 하였는데, 강응정, 남효온 등의 '소학계'와 같은 성격의 모임이었다. (이종범, 「김굉필: 침묵, 미래와의 대화」, 『사림열전 2: 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8, 359쪽)

51) 조원래,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東洋學』 25,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5, 264쪽

52) 이종범, 「김굉필: 침묵, 미래와의 대화」, 『사림열전 2: 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8,

53) 조원래,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東洋學』 25,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5, 257~278쪽

54) 이종범. 「유희춘: 적막하고 아득해도 공부를 그칠 수 없다」, 『사림열전 1: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45쪽

고전이었던 주희의 『資治通鑑綱目』, 진덕수의 『大學衍義』, 여조겸의 『東萊博議』 등을 가르쳤으며, 제갈량의 「출사표」를 비롯하여 김일손의 문과제술인 『中興對策』 등을 익히도록 하였다.[55]

이러한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성춘(1495~1522)은 중종 8년(1513) 생원진사, 이듬해 별시문과에 통과하고 내수사 長利 철폐, 限田法 시행, 소격서 혁파 등 기묘 혁신정책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家學的 분위기에서의 아버지 유계린의 가훈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일상의 과제를 하나하나 제시하였다. 간단한 듯하지만 쉽지 않은, 그래서 일상을 더욱 굳게 다그치라고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다.

이에 유희춘은 평생처사로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의 언행을 통해 얻은 교훈을 기록하여 警戒로 삼은 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자식들을 위해 훗날 「十訓」으로 정리하였다. 유계린은 스승 김굉필의 「家範」[56] 가운데 「家居儀」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家居篤行十條』를 유희춘에게 남겼는데[57] 그 대개가 김굉필로부터 이어 받은 것으로 학문적으로 治人보다는 修己에 중점을 두는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유희춘이 전해주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

55) 김일손이 문과를 치를 때의 책문이 '中興'이었다. 즉 '옛적부터 제왕이 천하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으나 자손이 지키지 못하여 쇠퇴하고 부진하다가 중흥하곤 하는데 연유와 사적을 설명하라.' 또한 '천하의 형세는 정해진 운수가 있어 인력을 용납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治道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가.'를 논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김일손은 당대를 창업 백 년을 거치면서 일시 쇠퇴하고 민심의 이반을 겪었다하여 중쇠기로 보았다. 그러나 중흥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중흥을 위한 일차적 과업으로 어두운 과거의 상흔을 치유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종범. 「김일손:당신의 죽음은 하늘의 시샘이었다」, 『사림열전 2: 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8, 319~321쪽) 그런 점에서 『중흥대책』은 도학을 강조한 지치주의의 편린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56) 『海東雜錄』에는 김굉필이 『예기』의 內則篇을 본떠서 家範을 짓고 儀範을 마련하여 자손들에게 보이되, 훈계하는 방법으로는 인륜을 더욱 중하게 하였다고 한다. 특히 아래로는 남녀 종들에게도 내외가 분명하게 하였으며, 그들 능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되 절하고 꿇어앉고 일하는 것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게 함으로써 가족과 전혀 차이 없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김굉필이 중국과 같은 家訓書 가 제대로 없음을 한탄하면서 『예기』의 內則 등을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이에 대하혀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그 내용의 일부는 가족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남녀 노비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일의 처리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계민, 「김굉필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2000, 44쪽 ; 『海東雜錄』(고전국역총서 『대동야승』Ⅴ, 민족문화추진회) 권2, 김굉필)

57)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十訓>, <십훈>은 유희춘이 명종 14년(1559)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에서 유계린의 훈화를 10개조로 정리한 것으로 내용은 그 대개가 김굉필로부터 이어받은 도학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옥천 군수 金立이 찾아왔다. 서로 그 할아버지 한훤당의 사적을 얘기했다. 한훤당이 순천에 있을 때 우리 先親과 柳孟權씨가 실제로 수학하였는데, 맹권씨의 어머니 설씨가 그를 아들로 여겨 마음을 다해 음식을 제공했다. 한훤당이 참혹하게 죽고 폐주(廢主 연산군)가 그의 가산을 적몰케 하자, 상을 치르는 일은 설씨가 도맡아 처리했다. 바로 光孫 숙부의 아내이다. 이 일에 대해 얘기하자니 몹시 슬픈 생각이 들었다. 58)

여기에서 유희춘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부친 유계린은 당시 이적·최충성·윤신·임우리 등 김굉필의 다른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 역시 평생을 隱逸로 마친 인물이었다. 이외에도 스승 김굉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의 道學風의 행동은 아들 유희춘의 문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유희춘은 19년의 유배생활과 이어진 관직생활로 인하여 가정의 교육이 잘못된다면 가깝게는 父兄뿐 아니라 家門과 조상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신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었고, 집안의 가르침들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자손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모아 「정훈」에 묶었던 것이다..59) 「정훈」의 편찬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친이신 증이조참판 성은공의 언행과 문장은 순수하고 결점이 없었다. 나는 어려서 일찍이 가르침을 잃어 버려서 항상 평생 동안의 슬픔으로 간직하였다. 또한 不肖하여 부모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지금 기록하여 두지 않는다면 사라짐에 이를까 두려워서 삼가 슬퍼 우면서 居家와 篤行편 10조를 기록해 두었다. 날로 더욱 깨우쳐 돌아보고 살펴보고자 「정훈」을 지었다.60)

「정훈」은 『미암집』의 卷4에 실려 있는데, 「십훈」과 「내편」과 「외편」으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3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58) 『眉巖先生集』 卷7, 임신, 9월 18일

59) 심정열, 「朝鮮時代 家訓 硏究-眉巖·草廬·戒懼巖·顧巖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11, 35쪽

60)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十訓>, "先君贈吏曹參判城隱公言行文章。爲粹無玷。而孤早失敎訓。常抱終天之慟。又不肖無以顯父母於世。今不記載。恐至湮沒。謹泣血而記得居家篤行十條。日加警省。庸作庭訓"

「내편」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독서에 관한 글로 尊卑長幼・待人禮人・養生治生・讀書解文・大小行事 등 모두 5장이 기술되어 있다.

「외편」은 上・下로 나누어져 있는데, 上은 '入朝須知'라고 하여 조정에서 벼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절에 관한 글로 몸가짐과 일 처리, 그리고 交遊에 관련된 내용으로 律身行己・勤職處事・睦僚敬貴・擇交語人・絶謁應請・禮儀・避爭・求書求益의 8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下는 '治縣須知'라고 하여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 알아야 할 내용으로 律身・御吏・牧民聽訟・求言用人・治姦勸善・謁聖興學・待士接賓・篤親念舊 등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십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십훈」이라 명한 그 열 가지 가르침은 氣像·窒慾·事親·齊家·修身·處事·知人·接物·戒仕誨遷·文學을 말한다. 항목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일생의 자취를 서술했다. 어려서 자신을 등에 업고 들려주신 말부터 집안의 일상 속에서 듣고 본 아버지의 언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남김없이 마음에 곱씹고 새긴 내용들인 것이다.

첫 번째는 氣像章으로 기상은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몸가짐을 말한다. "사람의 氣像은 端正하고 鄭重하면서도 가볍지 아니하며, 깊이 있고 조용하면서도 얕지 않아야 한다. 종일토록 엄연하여 때가 그러한 뒤에 말한다.[61]"라고 하여 이와 같이 실천하여야 德을 이룰 수 있으므로 德行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질을 바로잡기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窒慾章으로 욕심을 막아야 수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찍이 제물과 여색, 노래와 춤, 즐거운 놀이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마침내 사람답지 못하게 된다.[62]"라고 여겨 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며,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하므로 물질과 여자, 그리고 山海珍味와 놀이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事親章으로, 어버이를 섬김에 관한 것이다. "평상시 어버이를 섬김에 사랑하고 공경함이 바다같이 넘쳤다. 매번 海南에서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되면 문득

61) 『眉巖先生集』 卷4, 「庭訓」, <氣質>, "凡爲人氣像。要端重而不輕。深沈而不淺。終日儼然。時然後言"
62) 『眉巖先生集』 卷4, 「庭訓」, <窒慾>, "先君性恬虛安靜。自少至老。不聽鄭衛之音。深遠女色。而未嘗言及於淫媟。分外之財。視如土塊。於一切繁華世味。淡然無所好。嘗曰。殉乎貨色歌舞嬉游。卒爲非人"

싸서 보낸 연후에 마음이 편안하였다.[63]"라고 하여 자식 된 도리를 행하여야 부모님 뿐 아니라 자식도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네 번째는 齊家章으로, 집안 다스림을 다루고 있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동생에게 이른 벼를 심는 논을 주고 두 여동생에게도 논밭과 노비 중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64]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재산상속 관행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奉祀條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자녀들이 균평하게 나누는 均分相續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아래 동기를 후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유계린은 그렇게 하라 이른 것이다. 또한 "한 집안에서 마땅히 그 마음을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진실로 조금이라도 편차가 있으면 일은 순조롭지 않으며, 인륜은 밝지 않게 된다.[65]"라고 하여 이러한 잣대를 奴婢에게까지 적용시킨 것에서 유계린의 엄정함을 엿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守身章이다. "그윽하고 바름을 즐거워하고 두문불출하여 손님이 오면 접대할 뿐이었다. 대개 세상 풍조의 경박함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개를 굽히지 않으려 하였다.[66]"라고 하여 찾아오시는 손님은 극진히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進退를 분명하게 해야 하므로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곳에 나아가지 않아야 절개를 굳게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는 處事章으로, "士君子가 일을 처리함에 다만 마땅히 理致를 따라야 하며, 이익과 손해로써 따르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67]"라고 하여 선택의 기준이 손익이 아닌 의리와 명분이어야 하므로 권세와 이익에 아부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知人章으로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에 편벽되거나 간사하여 아첨을 잘하며, 날카로이 앞에 나서고 면전에서 칭찬하는 자는 간사하다. 질박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항

63)『眉巖先生集』卷4,「庭訓」,<事親>,"平時事親。愛敬洋溢。每於海南。得一佳味。輒封送然後心乃安"
64)『眉巖先生集』卷4,「庭訓」,<齊家>,"至將已早稻田。擧而與之。有二妹。爲萱堂所鍾愛。分財之時。田土奴婢之美者。悉以讓之"
65)『眉巖先生集』卷4,「庭訓」,<齊家>," 一家之內。當公其心。笱一有偏倚。則事不順而倫不明矣"
66)『眉巖先生集』卷4,「庭訓」,<守身>,"卽樂幽貞。杜門不出。客來則接之而已。蓋厭世風之澆薄。而不欲屈節於人"
67)『眉巖先生集』卷4,「庭訓」,<處事>,"凡士君子處事。但當順理。不可以利害爲趨避"

상성이 있고 신의가 있는 자는 바르다.[68]”라고 하여 바른 사람의 기준으로 直·實·恒·信을 꼽고 있다.

여덟 번 째는 接物章으로, 여기서 接物은 사람을 대한다는 뜻과 물건을 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제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택하는 것으로 우선을 삼고, 가르침에 있어서는 성실함을 잘 보존하는 것으로 귀함을 삼는다.[69]”라고 하여 선택에 최우선 기준은 사람이므로 성실하게 대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리는 사물에도 통한다고 보고 있다.

아홉 번째는 戒仕誨遷章으로 벼슬을 경계하고 거처를 옮겨 근심을 멀리하는 가르침이다. “벼슬의 어려움은 산이나 물보다 험난하다. … 네가 만약에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마땅히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으로 옮겨 살아서 먼 일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70]”라고 하여 벼슬살이의 조심스러움과 좋은 마을을 선택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하는 어진 사람이 살고 仁厚한 풍속이 있는 곳을 선택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시각과 같다.[71]

열 번째는 文學章이다. 학문은 평생의 과업이고 바른 것을 쫓아야 한다. 유희춘은 부친이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학습했다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더욱 힘쓴 목록을 들고 있는데, “내가 책을 보아서 시를 아는데는 부족하나, 글을 지어서 이론을 세우는 것은 능숙하다. 『四書』·『詩』·『書』·『禮記』·『少微通鑑』에 있어서는 정밀하고 상세하게 연구하여 행마다 외우지 않음이 없었다.[72]”라고 하여 문장을 짓고 경전과 사서를 읽는데 온갖 정성을 쏟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은 “매번 지나간 옛날을 살펴봄에 충신과 선량한 자에겐 감탄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에겐 분노하고 미워하였고, 문자를 고름에 모두 사악함을 누리고 바른 것을 함께 함에 힘썼다.[73]”라고 하여 사람이든 문자이든

68) 『眉巖先生集』 卷4, 「庭訓」, <知人>, “觀人之法。便僻側媚。進銳面譽者。邪也。質直樸實。有恒有信者。正也”
69) 『眉巖先生集』 卷4, 「庭訓」, <接物>, “凡交際以擇人爲先。敎誨以持誠爲貴”
70) 『眉巖先生集』 卷4, 「庭訓」, <戒仕誨遷>, “仕宦之難。難於山險於水 … 汝若成立。當遷居于中土。以爲遠慮。可也”
71) 『論語』, 「理仁」, “子曰 里仁 爲美 擇部處仁 焉得知”
72) 『眉巖先生集』 卷4, 「庭訓」, <文學>, “嘗自言吾看書則短於知詩。屬文則長於立論云。四書及詩書, 禮記, 少微通鑑。精硏熟究。無行不誦”
73) 『眉巖先生集』 卷4, 「庭訓」, <文學>, “每覽前古。感慨忠良。憤疾姦諛。而揀擇文字。皆務抑邪與正”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희춘家의 가정생활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유계린의 가르침이 담긴 「십훈」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74] 유계린은 저술이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자료가 많지 않으나, 장인 최부와 김굉필의 문하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수학한바 성리학에 상당한 조예를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계린은 김종직과 김굉필로부터 이어받은 조선 유학의 정신을 유희춘에게 전수하여 호남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당시 유계린도 두 스승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적 실천규범을 내용으로 학문적인 면과 더불어 修身齊家의 생활윤리를 강조하였고, 이는 유희춘에 의해 「십훈」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당시의 조선조 사대부들은 四禮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의 교화서를 만들어 점차 변해가는 향촌질서를 안정시키려 하였던 것이다.[75] 이때 선비의 인격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을 학문적 연마에 앞서 도덕적 실천이라고 보고, 자기완성을 위한 기본방법과 성격을 『朱子家禮』와 『小學』의 실천규범에서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는 유희춘이 「정훈」을 짓는데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그도 무엇보다 학문의 기초를 중시하였고 인간 교화에 있어서 『소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음은 「정훈」의 내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편은 모두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한다. 네 번째 장은 讀書解文章으로 유희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독서하는데 수용하여야 하는 6가지가 있다. 첫째, 부지런히 읽는다. 매일 과업의 정도를 엄격하게 세워서 조금도 태만하거나 빠트려서는 안 된다. 둘째,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똑똑하게 잘 기억한다. 매달 예전에 들은 것을 익숙하게 익혀서 잊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정밀하게 생각한다.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고, 의심이 나는 곳은 이해하여야 한다. 넷째, 명확

74) 채민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庭運營과 生活-『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조선대사학과 석사논문, 2010, 15쪽

75) 채민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庭運營과 生活-『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조선대사학과 석사논문, 2010, 14쪽
고영진, 「15·16世紀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한국사론』 21, 1989 : 16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家禮書로는, 金麟厚의 『家禮考誤』, 李彦迪 『奉先雜儀』, 李滉의 『退溪喪祭禮答問』, 李珥의 『儀祭抄』, 『擊蒙要訣』 중 喪制·祭禮, 등이 대표적이다.

하게 구분한다. 어려운 것을 스승이나 벗에게 묻고, 聖人에 의거해 절충한다. 다섯째, 잘 짓는다. 수정하고 고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야 말과 이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여섯째, 독실하게 행한다. 체득하여 알고 깨달으며 자신에게 돌이켜 실천한다.[76]

옛것을 익히고 숙독하여 매 章마다 3~5번 두루 읽는다. 한 部를 읽은 뒤에 처음부터 또한 그 같이 한다.[77]

이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끊임없이 반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하는 절차로 勤讀・强記・精思・明辨・善述・篤行을 들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가훈의 목차 이름으로 독서라 하고 있는데 비하여 해석문을 덧붙여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정훈」의 외편은 上下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上에서는 첫 번째와 여덟 번째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는 律身行己章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면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겸손한 행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과거에 급제하면 스스로 깊이 겸손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같은 고향의 높은 사람을 보면 더욱 겸손하여야 한다."[78] 유희춘은 위와 같이 출세를 하면 평소대로 행동하여도 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덟 번째는 求書求益章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학문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관직에 있으면서 반드시 『五禮儀』・『大明律』・『大典續錄』의 法典과 『無冤錄』・『考事撮要』등의 책을 읽어야 한다."[79]라고 하여 관리로서 끊임없는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독서의 범위도 조선과 중국의 법전, 법의약서 그리고 역사

76)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內篇-讀書解文>, "余嘗謂讀書受用有六節。一曰勤讀。每日嚴立課程。少無怠闕。二曰强記。每月熟習舊聞。勿令遺忘。三曰精思。比較同異。理會有疑。四曰明辨。問難師友。依聖折衷。五曰善述。不厭修改。詞理俱達。六曰篤行。體認覺悟。反躬踐履"

77)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內篇-讀書解文>, "凡溫古熟讀。每章三五遍。讀過一部後。從頭亦如之"

78)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外篇 上-律身行己>, "登第。深自謙恭。見同鄕同道先進。尤宜退讓"

79)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外篇 上-求書求益>, "凡居官。須讀五禮儀, 大明律, 大典續錄, 法典, 無冤錄, 考事撮要等書"

적인 관례집 등의 서적을 광범위하게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훈」의 외편 下에는 縣令職을 수행할 때 알아야할 내용으로 8장을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장과 일곱 번째 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세 번째는 牧民聽訟章으로 유희춘은 훌륭한 목민관이라면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여겼다. “형벌을 감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큰 근본이다.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하나의 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일을 감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80]라고 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정책이 과중한 세금이라 여겼다. 그리고 형벌을 너무 엄하게 적용하면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조세든 형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번거롭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여야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待士接賓章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장이다. “선비 중에 덕행과 학식이 있는 자는 마땅히 예로 공경하고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81]라며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훌륭한 수령이 되는 길로 인식했다. 유희춘은 고을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비를 예를 갖추어 대접한다면 누구나 따르므로 벼슬아치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닌 봉사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유희춘家의 「정훈」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훈」의 구성상 특징은 「십훈」과 내편에서는 修身에 관한 내용을, 외편에서는 관직생활이라는 處世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면 齊家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19년간의 유배생활과 이어진 관직생활로 인하여 집안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 명확치 못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82]

이를 토대로 「정훈」의 특징을 살펴보면, 독서와 문장, 수학을 강조한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곧 修己이며 治人으로 연결되는 소학적 수기의 도학의 반영이라

---

80)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外篇 下-牧民聽訟>, “省刑罰薄稅斂。此牧民之大本也。興一利不若除一害。生一事不若減一事”

81)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外篇 下-待士接賓>, “士類有德行學識者。當敬禮而詢訪之”

82) 심정열, 「朝鮮時代 家訓 硏究-眉巖·草廬·戒懼巖·顧巖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11, 34~43쪽

하겠다. 그는 賜暇讀書와 修撰·正言 등 淸要職을 역임하여 經史와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르므로 그의 家訓에는 독서와 문장,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 여타 가훈보다 많이 발견되었다.

독서의 중요한 역할은 도덕적인 인격완성에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서 도서를 엄격하게 선별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학의 교육목적 중 하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양과 상식을 가진 독서인을 양성하며, 특히 사람다운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부터 독서는 강조되어 왔는데, 『명심보감』에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이 없고, 지극히 중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 만한 것이 없다.'[83]는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식교육이 독서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유희춘은 부친 유계린에게서 어려서부터 독서와 문장 수업을 철저히 수학하였고 20세 때 최산두·김안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집안을 이룰 자식으로 여겨져 매우 엄격한 훈육을 받았는데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 매번 친히 업고 걸으시면서 일찍이 이르길, 우리 집안을 이룰 자는 이 아들이다. 이에 경계하여 이르길, 한 집의 안에서는 마땅히 그 마음을 공평하게 하고 진실로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일은 순조롭지 않으며 인륜은 밝지 않게 된다고 하셨다. [84]

유희춘은 어려서 부친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장하였다. 부친은 그가 훗날 뛰어난 학자가 되리라 짐작하고 항상 업고 다니며 그에게 훈계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인륜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륜을 밝혀 조금의 사특함이 없게 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책 속에는 성현들의 사람 된 도리에 관한 언행들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독서와 공부의 과정 없이는 인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역할을 알 수 없으며, 이것을 알고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람다운 삶

83) 『明心寶鑑』, 「訓子」, "至樂 莫如讀書 至要 莫如敎子"
84)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十訓-齊家>, "每親負以步。嘗曰。成吾家者。此子也。仍戒之曰。一家之內。當公其心。笱一有偏倚。則事不順而倫不明矣"

이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배우는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된 도리를 다하는데 있다. 이는 김굉필의 '위기지학'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엄격한 교육을 받은 그는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하고자 하였다.

> 부친의 성품은 맑고 조용하며 편안하고 고요하였다.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음란한 망국의 음악을 듣지 않았고, 여색을 매우 멀리하여 일찍이 음란하고 문란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분수 이상의 재물은 보기를 마치 흙덩이 같이하였다. 모든 화려한 세상의 맛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고 깨끗하여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일찍이 재물과 여색, 노래와 춤, 즐거운 놀이에 대해 탐하게 되면 마침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85]

올바른 학습이란 지식의 습득만이 아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의 독서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인성 함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던 것이다.

독서와 공부는 성인군자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李珥는 "道에 들어가는 것은 이치를 연구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고, 이치를 궁구함은 책을 읽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聖賢이 마음을 쓴 자취와 선과 악을 본받고 경계해야 할 것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86]라고 하였다.

아동교육서의 대표서중에 하나인『명심보감』에는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르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며, 근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87]라고 하였다. 이는 때를 만나 출세를 하여 부귀하게 되든지, 때를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을 수양하여 인격자가 되어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모두 독서가 근본이 된다는 논리이다.

또한 유희춘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안목이 선행되어야 함을 당연한 처사로 여겼다. 그가 다음 순서로「정훈내편」을 꼽은 것은 주로 가정 내

---

85)『眉巖先生集』 卷4,「庭訓」, <十訓-窒慾>, "先君性恬虛安靜。自少至老。不聽鄭衛之音。深遠女色。而未嘗言及於淫媟。分外之財。視如土塊。於一切繁華世味。淡然無所好。嘗曰。殉乎貨色歌舞嬉游。卒爲非人"

86)『擊蒙要訣』,「讀書」, "入道莫先於窮理 窮理莫先乎讀書 以聖賢用心之迹 及善惡之可效可戒者 皆在於書故也"

87)『明心寶鑑』,「入敎」, "讀書起家之本 循理保家之本 勤儉治家之本 化順濟家之本"

의 일을 교육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적인 교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부모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가정교육이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독서하는 여섯 가지 중요한 절차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 내 일찍 말하기를 "독서에 받아들일 여섯 큰 절목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부지런히 읽는 것으로, 매일 엄격하게 과정을 세워 조금도 게으르거나 빠짐이 없어야 한다. 둘째,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똑똑하게 잘 기억하는 것으로 , 매월 옛날에 들은 것을 익혀 잊지 못하게 한다. 셋째, 정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같고 다름을 비교하고 의심나면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넷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어려운 것은 스승과 벗에게 묻고 성인이 절충한 것에 의거한다. 다섯째, 글을 잘 지으려면 고치기를 싫어말고 事理를 모두 통달해야 한다. 여섯 번째 독실하게 이행한다. 道理를 깨달아 자신에게 돌이켜 실천한다.[88]

독서를 하는 자는 부지런히 읽고, 읽은 내용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야 하며, 의심나는 곳이 없게 깊이 사색하여야 하고, 어려운 것은 師友에게 묻고 또 물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聖人의 뜻에 따르고, 文理와 理致에 맞는 글을 잘 짓고, 사리를 체득하면 힘써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9] 이는 곧 앎의 실천이라는 도학의 반영인 것이다.

다음은 가정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가정이 튼튼하게 지탱되지 못하면 사회와 국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미 많은 家門에서 治産과 경제 관한 언급을 하였고, 이에 유희춘도 자신이 직접 지은 힘써야 하는 생활의 원리 10가지를 제시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8)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內篇-讀書解文>, "余嘗謂讀書受用有六節。一曰勤讀。每日嚴立課程。少無怠闕。二曰强記。每月熟習舊聞。勿令遺忘。三曰精思。比較同異。理會有疑。四曰明辨。問難師友。依聖折衷。五曰善述。不厭修改。詞理俱達。六曰篤行。體認覺悟。反躬踐履"

89) 심정열, 「朝鮮時代 家訓 硏究-眉巖·草廬·戒懼巖·顧巖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11, 62~70쪽

나는 살아가는 이치로 10가지 힘쓸 것을 지었다. 첫째는 좋은 땅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안을 다스리는 것이요. 셋째는 사치를 금하는 것이요. 넷째는 노비에게 일을 부과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음식을 절약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누적된 것을 면해주는 것이요. 일곱째는 씨앗을 가리는 것이요. 여덟째는 불씨를 저장하는 것이요. 아홉째는 암컷을 기르는 것이요. 열 번째는 물과 불을 막고 도적에 대비하는 것이다.[90]

또한 그는 사족과 관료가 향촌에 있을 때와 관직에 나갔을 때 지켜야 할 규범과 자세를 제시했다.

내편에서는 일부분 향촌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는 향촌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교화를 위한 사족들의 약속인 鄕規를 발전시킨 형태였다. 외편은 관료가 된 사족이 조정에 있을 때와 목민관으로 나갔을 때 지켜야 할 규범을 각각 入朝須知와 治顯須知에 나누어 살폈다.

향촌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활발히 나오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유희춘의 경제활동에 대한 언급은 과도기적인 시기에 호남사림이 나름대로의 居鄕觀을 내면화하면서 사족중심의 향촌사회 지배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91]

조정에 나갔을 때에 유희춘은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며 동료와 화평하게 지내지만 엄격하게 사람을 가려 교제하며, 請囑은 거절하지만 남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하였다. 일상의 일천덕목이었다. 나아가 논쟁을 피하고 책을 구하며 개과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는 3분의 대화에 그치고 마음을 전부 내보이지 않는다.”또한 “자기의 단점을 감싸지 말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관료 사이의 경쟁에서 오는 불신, 나아가 오만과 편견에 대한 유희춘 나름의 처방이었던 것이다.

특히 유희춘은 목민관으로서의 원칙과 자세 그리고 책무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임금의 백성 사랑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수령이 바로 서야 백성이 편할

90)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內篇-養生治生>, “余作生理十務。一曰獲吉地。二曰得內治。三曰禁奢侈。四曰課奴婢。五曰節飮食。六曰免積累。七曰擇種子。八曰儲灰矢。九曰畜牝牸。十曰妨水火備盜賊”

91) 김인걸, 「16・17세기 재지사족의 ‘居鄕觀’」, 『한국문화』19,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7, 155쪽 참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련의 마음 씀씀이와 몸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수령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위엄이 없으면 민·형사 소송을 공정히 처결하지 못하며, 지방 유생의 공부를 분발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향리의 통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吏卒의 속임수를 엄히 징계하고, 下人이 조금 착하고 능숙하다고 말로 칭찬하며 즐거움을 나타내지 않는다." 고까지 하였다. 조금은 비인간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토착세력을 경계하고 말 잘 듣는 아랫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선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우대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래서 "벼슬을 하여 귀하게 되었다고 벼슬 못할 때의 천함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수령의 교만을 경계하였으며, 붕우의 情誼는 잃지 말고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를 정성스레 대우하라."고 하였다. 사풍의 진작을 위하여 수령이 겸손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권세와 벼슬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당부인 것이다.

'치현수지'에서는 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징수문제도 다루었는데 "일체 공물은 토지 전결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개혁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당시 貢納制가 공물을 현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 이를테면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에서 사들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비싼 값을 치르고 토호 향리가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공물을 미곡이나 면포, 삼베 등으로 징수하고 나라에서 이를 상인에게 주어 필요한 물품을 구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납제 개혁안은 훗날 이이가 제안한 收米法과 李元翼·金堉등이 실시한 大同法으로 구체화되어 주장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훈」은 단순한 훈육서가 아니었다. 이는 조선후기 조세제도 개편의 효시이자 나아가 서정쇄신과 지방행정개혁의 흐름을 타고 출현한 여러 종류의 牧民書의 선구로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만큼[92] 당대의 현실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김굉필의 『소학』중시 도학적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천궁행 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

92) 이종범. 「유희춘, 적막하고 아득해도 공부를 그칠 수 없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56~158쪽

2. 「過庭記訓」의 爲己之學과 奇大升의 道學政治 구현

16세기 조선조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관료인 奇大升(1527~1572)은 신진사류와 훈구대신 간에 일어났던 네 차례의 사화가 발생했던 시기에 전라남도 光州에서 태어났다.[93] 그의 가계를 보면 부친은 寄進(1487~1555)이며 숙부이자 계부가 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奇遵(1492~1521)이다.

기대승의 숙부인 기준은 김굉필의 실천중심 도학적 사상에 기반을 둔 많은 신진의 유생들처럼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물이었다. 그는 朝講에서 검토관으로 참여하여 전토를 가진자가 얼마 안되고 또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자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유랑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농업보다 상업에 종사하기를 좋아하는 실정이니 조세와 부역을 가볍게 해주고 국가는 재용을 절약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들은 그들 개인만의 주장이 아니라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인들과 논의된 견해였을 것이다.[94]

기대승의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정승과 장상을 다수 배출한 명문가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그 세를 유지하였으나,[95] 기준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게 되자 이를 계기로 그의 집안은 光州로 낙향하게 된다. 기대승의 삶은 이 士禍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자신의 숙부에 대한 그리움과 집안의 좌절된 이상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그의 삶의 방식과 학문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보를 중심으로 그의 어린 시절 일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 스승이 童蒙이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청하여 『大學』을 배웠는데, 일과 외에도 동몽이 배우는 것과 『中庸』, 『孟子』등의 책까지 아울러 외웠다.[96]

---

93) 『高峰集』, 고봉 선생 연보 참조,
94) 한예원,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고시가연구」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331쪽
95) 이현준, 「기대승의 四端七情說」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석사논문, 5쪽
96) 『高峰集』, 고봉 선생 연보 참조, 16년 정유(1537) 선생 11세

金緝이 기대승이 六甲과 相生의 이치에 능통한 것을 보고는 감탄하기를 “너의 계부 德陽先生이 성리학을 궁구하여 사림의 영수가 되었는데, 네가 역시 그 家業을 계승하는구나.” 하였다. 이어 ‘食’ 자를 부르며 聯句를 짓도록 명하자 기대승은 응하여 읊기를 “밥 먹을 때에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이다.” 하니 이에 오래도록 칭찬하고 탄복하였다[97]고 한다.

기묘사화 이후 그가 19세 되던 해, 다시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된다. 사화의 영향으로 집안이 광주로 낙향하게 된 점이나, 성장기에 사화를 직접 목격하는 과정에서 기대승의 학문과 태도가 사림의 학문적 배경 속에 그 근원을 두는 것[98]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기대승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 공부 과정은 주로 사림파의 성리학적 교양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年譜」와 「自警說」[99]을 중심으로 본다면 7세부터 가정에서 부친인 寄進에게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9세에 『孝經』과 『小學』을 배웠고, 이후 11세부터 17세까지 鄕塾 등지에 나아가 『大學』, 『中庸』, 『論語』, 『書傳』, 『詩傳』, 『周易』, 『古文眞寶』나 역사서들을 섭렵하게 된다.[100]

기대승은 10대 후반에 전라감사 宋麟壽(1499~1547)에게 『소학』을 제대로 배우고,[101] 10대와 20대 후반까지 학문적 태도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鄭鷟(1495~1554)이다. 그의 문하에서 10여 년을 출입하면서 기대승은 자신의 본격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자신의 학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나아가 김인후·이항·정지운·노수신과의 교유를 통하여[102] 성리학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토

97) 위와 같음. 金公緝, “見先生能通六甲相生之理。嘆曰爾之季父德陽先生。究性理之學。爲士林之宗。爾亦能繼其業。因呼食字。命作聯句。先生應聲曰。食無求飽君子道。稱服久之”

98) 고대혁, 「고봉 기대승의 교육사상」, 『동양철학』 14, 한국동양철학회, 2001, 113쪽

99) 『高峰集』, 先生十九歲。“仁廟升遐。哭臨素食至卒哭。及聞士林之禍。終日廢食垂泣。閉戶不出。嘗著一書以自戒”. 을사사화의 소식을 듣고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면서 의분을 느꼈으나,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고, 「自警說」을 지어 스스로 삼갔다.

100) 『高峰集』, 고봉 선생 연보 참조

101)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78쪽

102) 고대혁, 「고봉 기대승의 교육사상」, 『동양철학』 14, 한국동양철학회, 2001, 115쪽 ;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78-213쪽 참조

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학문세계를 심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기대승의 학문의 과정은 道에 대한 탐구에서 이러한 학문적 진리를 실현하고 있는 이상적 聖人의 모범, 그리고 이재는 정신을 학습 내용으로 전형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四書』에 대한 학습 강聖人의당대는 대표적인 여게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성리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담론은 道와 이상적 인격에 이르는 관문이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부와 학문에 대한 그의 인식은 16세기를 전후한 사림파의 학문정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화의 소용돌이에서 태어났고, 이 사화가 성장기의 기대승에게 그의 인생과 학문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성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당대의 巨儒들과 성리학의 핵심적 논점에 대한 토론과 논쟁[103]은 그의 학문의 지평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점들은 도통 의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신념과 의식은 삶의 일상과 분리 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의 성장과 修學過程에서 형성된 학문적 태도와 신념은 일상을 이끌어 가는 삶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대승의 家門이 사림의 정통적 계보를 잇고 있으면서 家學을 해왔다는 점에서 김굉필-기준으로 이어지는 도학적 현실인식의 반영물로서「過程記訓」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살펴본 유희춘家의「정훈」같이 기대승도 부친에게서 보고 들은 언행에 바탕을 두고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를 아래의 작성동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03) 대표적인 논쟁으로 27살의 차이가 나는 원로 이항과 벌인 '태극음양논쟁'이 있다. 이는 '태극음양논쟁'은 '태극과 음양은 한 물건인가, 다른 물건인가', '理와 氣는 서로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두고 토론을 벌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술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이황과의 '사단칠정논변'도 기대승의 편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오고가는 편지는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편지를 베끼며 돌려보는 학자가 많았던 것이다. 두 사람의 왕복서한을 통해 독자들은 理氣·心性·氣質論의 행간을 엿보았고, 거기에서 바른 세상, 새 정치를 향한 고동을 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편지는 학술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공동선언과 같았던 것이다. (이종범,「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76~187쪽 참조)

내가 어릴 때부터 부친의 훈육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룬 것이 있음직하다. 그런데도 기질이 낮고 용렬하여 어리석기가 처음과 같으니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없다. 지나간 일은 지금 어찌할 수 없지만 앞으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소씨(邵氏)[104]에게도 『聞見錄』이 있었다. 학자들은 모름지기 듣고 보는 대로 기록하여 잊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하셨다. 이에 들은 것을 기록하여 조석으로 완미하려 한다.[105]

이와 같이 기대승은 부친의 말을 기록하여 마음 깊이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부친은 학문하는 자세에 있어 아래와 같이 당부하고 있다.

학문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하고 또 반드시 외워야 하며 슬쩍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읽으며 생각하고 생각하며 짓곤 하되 모두 부지런히 해야 하며 또 그중에 한 가지도 폐해서는 안 된다.[106]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것으로 근면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대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덕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로 기대승은 이러한 부친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어린 시절부터 '공부가 절로 재미있다'며 학문에 정진했다. 또한 그는 학문을 통해 단순한 언어만을 가지고 깨닫기보다 마음으로 터득하는[107] 태도를 견지했는데 이는 아래의 시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讀書求見古人心	글 읽을 때 옛 사람 마음을 보아야 하니
反覆唯應着意深	반복하며 마음에 깊이 붙여야 한다
見得心來須體認	터득하려면 마음으로 체득해야 하니
莫將言語費推尋	언어만 가지고서 찾으려 들지 마소[108]

104) 소씨(邵氏) : 북송의 학자 소백온(邵伯溫 : 1057~1134)을 말한다. 자는 자문(子文)이며, 소옹(邵雍)의 아들이다. 휘종(徽宗) 초년에 상소를 올려 당고(黨錮)를 풀어 주고 옛 제도를 회복할 것을 청하다가 당로자에게 미움을 받았다. 지과주(知果州)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하남집(河南集)』, 『소씨문견록』, 『역변혹(易辨惑)』 등이 있다.
105) 『高峰續集』 2卷, 雜著, 「過庭記訓」
106) 『高峰續集』 2卷, 雜著, 「過庭記訓」
107) 김건우, 『옛사람 59인의 공부 산책』, 도원미디어, 2004, 76쪽

부친은 항상 “너희들은 지금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면서도 어찌 공부를 하지 않는가”라고 독려하며, “배움에는 근실하여야 하고 반드시 외워야 하는데 또한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며 짓기를 근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 아래 어려서부터 재주가 특출하여 문학에 이름을 떨쳤던 그는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는 합하여 130구가 되는 西京賦를 지었는데, 이를 보고 기대승의 유년시절 스승이었던 鄭鷺[109]이 “조금만 더 진취하면 옛사람의 경지에 이르게 되겠으니 과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110]하는 칭송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111] 이뿐만 아니라 고금에 통달하여 기대승이 젊은 나이에 공부 방면에서 이룩한 성취가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그의 학문적 성과는 사마시에는 너끈하게 장원을 하였지만 대과에는 실패[112]하면서 오히려 그에게는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은 부친상으로 이 기간에 특히 주자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과정에서 『주자대전』에서 중요한 논설과 편지·箚子·記文 등을 모아 『朱子文錄』[113]으로 엮었다.[114]

이는 단순히 주자의 우주론·심성론만이 아니라 교화와 구휼을 중심으로 한 經世論까지를 아우르는 것이었다.[115] 그는 최대한 유학자의 도리에 따라 해결하려 함으

108) 『高峰集』 1卷, [詩○外集], 글을 읽으면서 〔讀書〕

109) 『高峰續集』 2卷, 祭鄭校理文 참조, “옛날 제가 어릴 때에 고루하고 몽매해서 학문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 무식하고 무지(無知)하였는데 가군(家君)께서 명령을 내려 공에게 귀의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기대승보다 32세나 연상인 鄭鷺과의 인연은 부친 寄進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종일, 「高峰思想의 입체적 조명, 그의 인생 歷程을 따라서」, 『전통과 현실』 2호, 고봉학술원, 1992 ;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78쪽)

110) 『高峰集』 고봉 선생 연보 참조, 신축(1541) 선생 15세

111) 이현준, 「기대승의 四端七情說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석사논문, 6쪽

112) 대과 때의 시관이 윤원형이었는데, 기대승의 시권(試券)이 고등이었지만 奇遵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한다. (오종일, 「高峰思想의 입체적 조명, 그의 인생 歷程을 따라서」. 『전통과 현실』 2호, 고봉학술원, 1992, 16쪽 참조;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78쪽)

113) 『朱子文錄』 : 기대승이 방대한 주자의 문헌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학자를 위하여 서간·잡저(雜著)·기(記)·부(賦)·주차(奏箚)·서문(序文)·발문(跋文)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64편의 글을 가려 뽑은 ‘간추린 주자대전’으로, 훗날 임진왜란 때 비운의 의병장이 된 김덕령의 증조부인 김윤제가 발간 비용을 협찬하여 나주 관아에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찾지 못하였는데 윤사순(尹絲淳)교수가 일본 내각문고(內閣文庫)에서 찾아냈고 고봉학술원에서 영인본을 입수하여 보급하며 학계에 알려졌다.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79쪽)

114)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78쪽 ;

115)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로써 유학 본연의 民本, 爲民政治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던 당시 사림의 학풍과도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그의 가계에서 부친·숙부로 이어지는 家風과 學風에 근원을 두면서 여러 원로학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항·김인후 등 호남의 대유학자들을 찾아가 토론하는 동안 기성 유학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그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아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의문이 나면 풀어야[116]만 했던 그때의 모습을 정철의 아들 鄭弘溟이 지은 아래의 「행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일찍 학문에 뜻을 세우고 시골에서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분발하여 경서에 침잠하여 깊고 미세하고 오묘한 뜻을 찾았으면서도 항상 그만두지 못하고 분주하였다.[117]

가훈의 두 번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내가 너희들에게 학문에 힘쓰게 하고자 한 것이 어찌 작록(爵祿)을 바라서이겠느냐.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여 다행히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고자 함일 뿐이다.

이는 학문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다른 세속의 목적을 얻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는 항목이다. 즉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가문을 빛내고 일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대개 자신을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부모와 가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문집의 여러 곳에서 기대승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안락한 삶을 확보하는 수단우로서의 공부라기보다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이 그 행위를 통하여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데에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위와 같은 부친의 가정교육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따라서 그는 공부를 즐기는 성리학에서 好學[118]하는

아침이슬, 2006, 178쪽

116) 고대혁, 「고봉 기대승의 교육사상」, 『동양철학』 14, 한국동양철학회, 2001 ;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80쪽

117) 『高峰集』, 고봉집부록 제1권, 行狀[鄭弘溟] 참조

118) 『論語』,「學而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주에 “습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배우기를 그치지 않음을 새가 자주 나는 것과

모습의 전형을 띠게 된다. 이러한 즐거움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래와 같다.

學習如何取數飛	배우고 익힘 어찌하여 자주 나는 새를 취하나
操存思索諒無時	조존하고 사색함 참으로 때가 없도다.
須敎浹洽中心悅	가슴속에 무젖어 기쁘게 해야 하니
未必撑眉獨解頤	반드시 눈썹 펴는 것만이 기쁜 것 아니로세[119]

그에게 있어 학문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그 즐거움은 우리 내면의 즐거움이며, 정신의 기쁨이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 이어지는 가훈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朱子는 벼슬한 날짜가 겨우 40여 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학자들은 또한 이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진실로 자기의 뜻을 행하려면 일개 縣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부친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기대승은 생계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공부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하는 학문은 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사화, 외척재상의 전횡, 여론 봉쇄 등 국가가 지닌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고자 많은 사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화로 얼룩진 정치적인 보복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귀향을 가는 것이 당시 세태였던 것이다. 그의 나이 19세가 되던 해에도 을사사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더욱 세상에 진취할 뜻이 없어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인격함양과 善性 계발, 곧 聖人이 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이러한 학문적 태도는 당시 기대승뿐만 아니라 당시 사림계열의 대부분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유학의 교육적 이상이라 할 수 있다.[120]

같이 하는 것이다.〔習 鳥數飛也 學之不已 如鳥數飛也〕" 하였다.

119) 『高峰集』, 고봉속집, 제1권, 존재망록(存齋謾錄), 시습재〔時習齋〕

120) 고대혁, 「고봉 기대승의 교육사상」, 『동양철학』 14, 한국동양철학회, 2001, 125~126쪽

따라서 그는 배움을 권장하였고, 이는 공자의 爲己之學[121]과 연결된다. 즉 '자신을 위한 공부'는 곧 '자신의 인격 함양', '자기완성을 위한 공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위기지학을 통해 인격적으로 자신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기대승 역시 인간의 교육이나 학문하는 길에서 이 위기지학의 정신을 실천해왔고, 후학들에게 이러한 배움의 길을 견지해 줄 것에 대해 간곡히 말하고 있다. 그는 1571년(선조 4)에 「玉川書院己」를 짓게 되는데 이 기록에서 교육과 학문의 목적이 위기지학을 통한 인간의 자기완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 내가 들으니,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을 하였는데, 지금에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한 학문(爲人之學)'을 한다고 한다.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면 성현에 이를 수 있고, 남을 위한 학문을 하면 겨우 과거에 급제하여 명예나 취하고 녹이나 얻는 것을 꾀할 뿐이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 · ·
>
> 비록 前賢들이 날로 멀어진다 하더라도 도는 일찍이 여기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어찌 마음을 다하지 못하겠는가. 제생들은 서로 더불어 이것을 힘쓰기를 바라는 바이다. 아, 슬프다.[122]

위와 같은 修己之學의 공부는 科擧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대로 유학의 이상적 인간상인 聖人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實踐躬行하는 공부가 된다는 김굉필의 도학적인 면모와 일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기대승의 공부는 선조 즉위 초 경연에서 그의 현실정치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는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마음, 임금의 책임과 신하의 의무, 그리고 성인과 현자가 어떻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는가에 대해 거침없이 토로하였던 것이다.

이는 기대승이 지난 세월 權臣의 전횡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선비의 기풍을 일신하고 민생경제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여긴 것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公論政

---

121) 『論語』, 「憲問」, 朱子註 : 程子曰 古之學者 爲己 其終至於成物 今之學者 爲人 其終至於喪己
122) 『高峰集)』, 卷2, 「玉川書院記」 참조

治의 여론이 크게 일며 경연도 활성화되었다. 아래 강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임금이 한갓 정사만 하고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근본이 없는 것이며 한갓 마음만 있고 이익을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정사가 없다면 은택이 아랫사람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123)

> 天道는 誠이며 實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내는 자체가 정성이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仁입니다.124)

기대승의 강론은 성인의 궤적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자 함이 아니었다. 백성을 살리는 군왕의 길 즉 '君主의 一心은 仁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또한 하늘의 뜻을 잃지 않아야 어질고 의롭고 아름답고 밝은 덕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임금도 '血氣와 物慾'이 없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 그러니 임금이 만약 무한한 권세로 욕심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임금에게 '氣質을 변화시키는 덕을 밝히는 공부', '본원을 함양하기 위한 근본공부'를 열심히 하여 인욕을 버리고 천리를 품어야 한다고 거듭 건의하였던 것이다. 125) 임금의 공부와 덕성만으로 세상이 평온하고 백성이 안돈할 수는 없었다. 온 나라 만백성의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임금 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君臣共治·同議政事, 그동안 仁政과 公天下를 위하여 조광조와 이언적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정치운영론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임금과 至微한 존재인 신하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승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情義가 소통하여야 한다."126) 고 하면서 당나라 한림학사 육지의 말을 빌려 임금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였다. 임금의 겸양과 신중, 임금의 평온과 인내 그리고 관용이 신하와의 소통에 가장 중요한

---

123)『宣祖實錄』1卷, 즉위년(1567) 12월 9일, 1번째 기사
124)『論思錄』上卷, 선조즉위년, 10월 갑진
125) 이종범.「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88~191쪽; 고대혁,「고봉 기대승의 교육사상」,『동양철학』14, 한국동양철학회, 2001, 참조
126)『論思錄』上卷, 선조 원년 1월 16일

덕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교육진흥이 기본임을 역설하였다.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가훈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 지금 세상에는 학문을 강구하지 않아 한때는 서로 좋게 지내다가도 뒤에는 도리어 곤욕을 보이곤 하니, 말을 하자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부디 함부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 요컨대 친구가 없을 수는 없지만 또한 사귐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127]

이는 기대승이 학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완성하고 국가와 사회를 至治的 理想世界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림파의 교육적 열망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대승이 생각하는 인재의 기준은 文藝가 아니라 行宜와 志節, 剛明과 正直이었다. 그래서 문예를 시험하는 과거보다 마음과 행동을 살필 수 있는 천거제를 좋은 제도라고 보았다[128]. 조광조에 의해 주창된 현량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향교나 성균관에서도 생도 교육을 담당하는 훈도와 교수는 '여러 해 몰락하였지만 학문을 일삼고 곤궁과 환란에 저해서도 지조를 변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하자고 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인재는 너무 젊어 나이 많은 유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보다는 다른 관직을 얻어 나가기를 원해서 내실이 없고 성의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벼슬길에 대한 경계도 가훈에 담고 있다.

> 벼슬길의 풍파는 매우 두려운 것이다. 자기의 뜻을 행하기도 전에 재앙이 이미 따르게 되니 다만 잘 헤아려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도 은거하는 것만은 못하다.[129]

한편 기대승은 신진사림이 제기한 각종 變通論이나 更張論에 미덥지 못한 반응을 보이곤 하였다. 변통론은 손쉬운 처방일 뿐이며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을 다스리려고

---

127) 『高峰續集』 2卷, 雜著, 「過庭記訓」
128) 이종범. 「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 『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188~191쪽
129) 『高峰續集』 2卷, 雜著, 「過庭記訓」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 당장 눈앞의 일만을 편하게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일을 만들면 나이든 사람은 어렵겠다고 여기면서도 여론에 거스를까 하여 역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선배 중진의 눈치보기, 보화뇌동을 탓하기도 하였다.

기대승은 '교화가 우선이며 법제는 나중의 일이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래서 누군가 새 법령을 제기하면 "법령을 새로 만들어 폐단을 고치려고 하는데 혹여 다른 흠집이 생겨 후일 폐단이 되지 않겠는가."하여 물리치곤 하였다. 공자의 말을 빌어 "작은 이익을 보고 速成하려고 하면 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집수리를 예로 들어 '조상이 살아온 집을 고치려거든 먼저 좋은 匠人을 구해놓고 쓸 만한 材木을 갖춘 다음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며 인재가 먼저라는 원칙을 설파하였다. 법제만으로는 흐트러진 인심과 풍속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제도와 시무가 아니라 명분과 의식, 그리고 인재가 중요하다는 원칙론이었던 것이다.[130]

이러한 그의 현실인식에는 김굉필의 실천중심의 도학이 내재되어 있으며, 가훈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130) 이종범.「기대승,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떠나니 한스러울 뿐이다.」,『사림열전 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200~201쪽

Ⅴ. 맺음말

이상에서 16세기 호남의 주요 가훈으로 유희춘家의 「정훈」과 기대승家의 「과정기훈」을 중심으로 당대 호남사림들의 현실인식의 바탕에는 김굉필의 도학사상이 내재되어있으며, 보다 다양한 교유와 사론활동으로 활발한 학풍을 조성하며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구현하고자 했는지 검토해보았다.

먼저 당시 사상경향을 주도했던 인물 중 특히 김굉필의 사상, 그 중에서도 도학사상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현실인식과 교육활동에 주목하여 순천 유배 중에 그의 학연이 호남사림과 연결되어 그들의 현실의식 성향과 현실대응의 방법에 있어서 주목되는 특성을 발견하였다. 이는 곧 호남사림의 학맥을 통한 사상적 연원이 김굉필의 사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그의 학문과 교육활동이 호남사림계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그의 사상적 영향이 호남사림의 성격형성에 어떻게 반영·계승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가훈에도 반영되어 이어왔다는 것이다.

『소학』의 실천 윤리관을 근간으로 한 김굉필의 도학사상은 최산두·기준·유성춘 등의 기묘사림에게 이어진 다음, 명종대의 김인후·유희춘 등을 거쳐 기대승·이발 등에게 계승됨으로써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사림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굉필은 중국과 같은 가훈서가 제대로 없음을 한탄하면서 『예기』의 내칙 등을 참조하여 「가범」을 지었다. 그 내용의 일부는 가족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남녀 노비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일의 처리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그의 제자인 유계린에 의하여 계승되어 그 가운데 「居家儀」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 「居家篤行十條」를 찬술하여 아들인 유희춘에게 남겼다. 따라서 『미암집』에 수록된 「정훈」의 내용은 그 대개가 김굉필로부터 이어받은 도학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내편」에서는 향촌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사항을 정리하였는데 향촌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교화를 위한 사족들의 약속인 '鄕規'를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외편」은 관료가 된 사족이 조정에 있을 때와 목민관으로 나갔을 때 지켜

야 할 규범을 각각 入朝須知와 治顯須知로 나누어 살폈다.

유희춘은 목민관으로서의 원칙과 자세 그리고 책무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임금의 백성 사랑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수령이 바로 서야 백성이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련의 마음 씀씀이와 몸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수령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위엄이 없으면 민·형사 소송을 공정히 처결하지 못하며, 지방 유생의 공부를 분발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향리의 통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吏卒의 속임수를 엄히 징계하고, 下人이 조금 착하고 능숙하다고 말로 칭찬하며 즐거움을 나타내지 않는다." 고까지 하였다. 조금은 비인간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토착세력을 경계하고 말 잘 듣는 아랫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치현수지에서는 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징수문제도 다루었는데, "일체 공물은 토지 전결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개혁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당시 貢納制가 공물을 현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 이를테면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에서 사들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비싼 값을 치르고 토호 향리가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공물을 미곡이나 면포, 삼베 등으로 징수하고 나라에서 이를 상인에게 주어 필요한 물품을 구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납제 개혁안은 훗날 이이가 제안한 '收米法'과 李元翼·金堉등이 실시한 大同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훈」은 조선후기 조세제도개편의 효시이자 나아가 서정쇄신과 지방행정개혁의 흐름을 타고 출현한 여러 종류의 牧民書의 선구로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현실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승은 사화의 소용돌이에서 태어났고, 이 사화가 성장기의 그의 인생과 학문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성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당대의 巨儒들과 성리학의 핵심적 논점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그의 학문의 지평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점들은 도통 의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신념과 의식은 삶의

일상과 분리 될 수 없는 것으로, 그의 성장과 修學過程에서 형성된 학문적 태도와 신념은 일상을 이끌어 가는 삶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대승의 家門이 사림파의 정통적 계보를 잇고 있으면서 家學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남긴 「과정기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부친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기대승은 생계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공부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하는 학문은 하지 않으려 하였다. 국가가 지닌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고자 많은 사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화로 얼룩진 정치적인 보복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귀향을 가는 것이 당시 세태속에서 이러한 그의 학문적 태도는 당시 사림계열의 대부분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며, 현실의식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훈을 통해 일관되게 배움을 권장하였고, 위기지학을 통해 인격적으로 자신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기대승이 학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완성하고 국가와 사회를 至治的 理想世界로 인도하고자 하는 도학적인 사림파의 교육적 열망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그의 태도는 현실 정치 운영론으로까지 연결되는데, 이 점은 문집에서도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법제만으로는 흐트러진 인심과 풍속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제도와 시무가 아니라 명분과 의식, 그리고 인재가 중요하다는 원칙록을 세우고 주창한 것이다.

이상, 16세기 특히 명종 후반에서 선조대에 걸쳐 호남 사림의 가훈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과 학문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의 정치계와 사상계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과 연결시켜 새롭게 이해해보았다. 이는 가훈이 단순한 훈계의 목적이 아닌 사상적 연원의 반영물로 재지사림들간 교유의 결과물이었음을 확인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호남에 대한 인식은 그간 평가 절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대적인 맥락에서 이 지역 재지사림들도 교유와 사론활동이 이어져왔었고, 이는 조선후기로 가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어 그들만의 향당윤리 및 거향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호남사림의 향당윤리, 거향관이 반영

되어 이 지역의 향약운동으로의 연결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國譯 景賢錄全』, 한훤당기념사업회, 삼화출판사, 1984

『眉巖日記草』, 담양문화원, 1990

『國譯 栗谷全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國譯 燃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1966년

『國譯 高峰集』, 민족문화추진회, 2007

『佔畢齋集』,『한국문집총간』12, 민족문화추진회, 1988

『眉巖集』,『한국문집총간』34, 민족문화추진회, 1989

2. 단행본

고영진,『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김건우,『옛사람 59인의 공부산책』, 도원미디어, 2003

김종권,『명가의 가훈』,명문당, 1977,

기대승,『高峰 奇大升 硏究』, 고봉학술원 편저, 2009

이종범,『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사림열전』2, 아침이슬, 2008

이해준 편저,『초려 이유태의 향약과 정훈』, 신서원, 1998

정재훈,『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최재석,『韓國家族制度史硏究』, 일지사, 1983

최효찬,『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예담, 2005

한국고문서학회,『조선시대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한국역사연구회,『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6

한국국학진흥원,『한국유학사상대계(교육사상편)』5, 2006

3. 논문

고대혁,「고봉 기대승의 교육사상」,『동양철학』14, 한국동양철학회, 2001

고영진,「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남명학연구』3, 경상대남명학연구소, 1989

김기현,「士林派 道學者들의 실천정신과 그 굴절」,『국학연구』9, 한국국학진흥원, 2006

김언순,「18세기 종법사회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교화 : 가훈서를 중심으로」,『사회와역사』제83집, 한국사회사학회, 2009

김인걸,「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 변화」,『역사와현실』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_____,「16・17세기 在地士族의 '居鄕觀'」,『한국문화』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7

김경숙,「가훈을 통해 본 17세기 사대부가의 분산수호」,『사학연구』제87호, 한국사학회, 2007

김봉순,「초려 이유태의 교육사상 연구」,『초려학논총』창간호, 1994

김훈식,「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역사와현실』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_____,「한훤당(寒暄堂) 김굉필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와 그 의미」,『동방학지』133, 연세대국학연구원, 2006

박성순,「고봉 기대승의 역사의식」,『동양고전연구』40, 동양고전학회, 2010

박 순,「朝鮮前期 光州지방의 鄕約과 洞契」,『동서사학』5, 한국동서사학회, 1999

심정열,「조선시대 가훈 연구 - 미암・초려・계구암・고암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한문교육학과 한문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안진오,「고봉의 생애와 사상」,『한국사상사』, 원광대출판부, 1991

양진선,「寒暄堂 金宏弼의 實踐 中心 敎育論」,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2009

오종일,「高峰思想의 입체적 조명, 그의 인생 歷程을 따라서」,『전통과현실』2, 고

봉학술원, 1992
오종일,「호남 유학사상의 특질」,『동양철학연구』36, 동양철학연구회, 2004
우영희,「한국전통가정에서의 자녀교육-처사교육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논총 제12집, 1992
우인수,「조선후기 한 사족가의 생활 양식-초려 이유태의 정훈을 중심으로」,『초려학논총』제2집, 2000
윤희면,「眉巖 유희춘의 생애와 저술」,『금호문화』9, 1984
이달우,「초려 이유태의 가정교육 사상-정훈을 중심으로」,『학생지도연구』14, 공주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85
이종범,「고산 윤선도의 출처관과 정론」,『대구사학』74, 대구사학회, 2004
이종욱,「寒暄堂 金宏弼의 道學의 觀點에서 본 敎育思想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철학 및 교육사전공 석사논문, 1994
이해준,「기묘사화와 16세기 전반의 호남 학맥」,『전통과현실』2, 고봉학술원, 1992
조계민,「김굉필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논문, 2000
정무곤,「조선시대 가훈서의 교육학적 해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육・윤리전공, 박사학위논문
정무곤,「17세기 가훈서를 통해 본 家의 교육적 역할」,『교육철학』제40집, 한국교육철학학회, 2007
조원래,「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김굉필의 도학사상」,『동양학』25,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5
정옥자,「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예론」,『한국문화』10, 1989
정재훈,「미암 유희춘의 생애와 학문」,『남명학연구』3, 경상대남명학연구소, 1993
정호훈,「眉巖 柳希春의 학문 활동과 『치현수지(治縣須知)』」,『한국사상사학』29, 한국사상사학회, 2007
_____,「15~6세기 牧民書의 전개와 牧民學」,『한국사상사학』36, 한국사상사학회, 2010

최이돈, 「16세기 사림 중심의 지방정치 형성과 민」, 『역사와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한예원,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고시가연구』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역사교육	학 번	20088069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정 경 미 한문: 鄭 京 美 영문: jung, kyung mi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우미아파트 101동 304호				
연락처	010-6746-3418 E-MAIL: ehehsu3418@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16세기 湖南士林의 家訓 -柳希春·奇大升 가훈의 사례- 영문: The Honam sarim`s family codes of conduct (家訓) in 16th centur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1년 10월 24일

저작자: 정 경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